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알아가는 기쁨 성경: 이사야 41장 8-12절

Tag:

8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 내라

9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 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 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10 나 여호와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43:8-12)

세상에는 많은 / 여러 가지 기쁨이 있는데, 가장 큰 기쁨은 역시 알아가는 기쁨이다.

알아가는 기쁨만큼 가성비(비용만족도?)가 큰 것은 없다. (물론 학원이나 과외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정보시대이다 보니, 아는 만큼, 지식을 인정받은 만큼, 경험이나 숙련도 만큼 수입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 아는 만큼 많이 벌 수 있다는 법칙도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 된다.

그러다 보니 알수 있는 길을 어렵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가 알려지는 것을 막아버리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수입을 지키려는 노력도 있어왔다. 기술자들은 어지간해서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는다.

갈수록 공무원 시험 문제가 난해하게 출제되고 있다. 실제 업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처럼 알아가는 기쁨이 방해받는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

8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 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깨우치게 하라는 말씀이다. 이제 저주가 끝났으니 무지의 동굴에서 이끌어 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세상 밖으로 풀어내라는 뜻이다.

-그러면 왜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8 기록된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롬 11:8)

10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사29:10)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를 덮으셨을까?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패역한 자가 되어서 마땅히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보지 않았고, 마땅히 들을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 소리에 귀를 닫아 버리고 못들은척,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겔12:2)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 버리는 자녀들이 있고, 아내의 말에 귀를 닫아버리는 남편이 있고, 남편의 말에 귀를 닫아버리는 아내가 있으며, 자녀의 말에 귀를 닫아버리는 부모들이 있다. 국민들의 말에 귀를 닫아버리는 대통령이 있으며, 대통령의 말에 귀를 닫아버리는 국민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죄인들이 있다. 불통의 시대가 곧 저주의 시대인 셈이다.

4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신29:4)

그래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현상은 일종의 저주현상이다.

15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13:15)

그리고 그 저주의 주체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들의 귀와 눈을 막아 버리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저주를 풀 수 있을 것인가?

1.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풀어 주신다. 바벨론 유배생활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저주를 풀어 주셨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경우임)

1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런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비슷하다. 그는 저주를 받아 7년동안 짐승처럼 보내다가 저주가 풀려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금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함이었다.

저주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복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2.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저주를 풀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의 죄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8:2)

18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벧전3:18)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눈과 귀를 열어 주신다.

그러면 아직 눈과 귀가 닫혀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눈과 귀가 열린 자가 그를 대신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사랑으로 그 사람의 저주를 풀어야 한다.

사람의 눈과 귀를 닫아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때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그에게 전달되어 그의 눈과 귀를 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알아가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다.

우리 모두 이 기쁨에 동참하자! 아멘.

18 나의 하나님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단9:18)

16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13:16)

18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막8:18)

9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2:9)

<찬양예배>

제목 : 스승이 필요한 이유 성경: 고린도전서 4장15-16절

Tag:

15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1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전4:15-16)

1. 선생과 스승과 아비

- 선생과 학생은 계약관계. 공적인 개념. 사적인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음.
- 스승과 제자는 선생 보다는 더 친밀하고 인도하는대로 따라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관계
- 아비는 생명을 주는 관계.
- 배우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는 관계

2. 수많은 스승이 있음

- 나름대로 길을 가본 사람들이 많다는 뜻
- 스승은 자기가 갔던 대로 따라오는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 스승은 제자가 자기보다 더 못하는 것을 은근히 바라는 경우도 있음.
- 말 그대로 수없이 많은 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옵션이 많음.
- 그러나 대부분은 처음 접한 길을 가는 경우가 많음.
- 모든 스승의 길이 자신에게 정답은 아님.
- 제자는 선택해야 함.
- 그러나 스승이 많아야 함. 그래야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깨우치게 됨.

- 하지만 허송세월하지 않으려면 스승을 잘 골라야 함.
- 조심스럽게 따라가야 함.
-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 정보가 넘치므로 스승은 비교가 됨.
- 그러나 스승이 하라는 대로 하면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됨.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알게 됨.
- 스승마다 방법이나 방식이 다름. 비슷할 수 있으며, 결론이 다를 수 있음.
- 시대와 상황과 지역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음.
- 스승이 필요하나, 단계가 지나면 관계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음. 어떤 경우에는 제자가 스승보다 커질 수도 있음. 스승은 그럴 경우 자랑스러워 함. (코치는 그래도 계속해서 필요함. 곁에서 잘 하는지를 봐 주어야 하기 때문임)

3. 생명을 전달해 주는 스승이 필요함(아비와 같은 스승;사부)

- 아비와 같은 스승은 생명력이 있음. (많은 스승들 중 아비와 같은 스승이 있음)
- 그 지혜와 가르침 때문에 자신의 삶이 변화됨을 의미.
- 그 변화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이 전파되면서 그들을 같은 생명으로 변화 시키는 것을 의미.
- 생명 그 자체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도록 중보기도하며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함.
- 저주로 인해서 눈이 가리우고, 귀가 막혔지만,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필요함.
-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므로 그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중요함.
- 우리는 생명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생명의 수혜자임. 생명의 전달자가 될 수 있음.

